

“쿵쿵 뛰는데 층간소음 아니라니”...이런 불만 줄어든다

신고 지속 증가...뛰거나 걷는 소리 전체 67.7% 주간·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 4dB씩 강화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가운데 뛰거나 걷는 소리에 적용되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 운영했다. 하지만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

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2017~2021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하거나 접수처리한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 기간 현장 소음측정을 나간 1864건 중 152건(8.2%)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9272건 중 발생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689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다. 땅치 소리 3247(4.7%), 가구 끄는 소리 2674건(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축구조 문제가 아닌 생활 습관 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일종의 생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를 따를 경우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존 43dB에서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강화된 기준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 구조 문제와 생활 습관 문제가 있을 텐데 건축 구조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고, 최근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날 발표된 것은 생활 습관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가지고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 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직접충격소음이 아닌 TV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칙 개정안을 조속

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을 차단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등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더위 지나가는 처서, 벌초 시작

처서인 23일 오전 경북 칠곡군 현대공원에서 공원 관계자들이 묘소 벌초를 하고 있다.

“재유행 정점 지나는중”...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이번 주~다음 주 중 감소세로 전환”

방역 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지금 정도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이번 재유행이 8월 중 일평균 20만명 전후로 정점을 맞은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 하루 800~900명에 이르고 사망

자는 하루 100~14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현재는 기존 예측 범위 내에서 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사망이나 위중증 환자의 경우, 확진자 증가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후 2~3주 정도까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 가을이나 겨울께 재유행이 올 것이라는 기존 관측에 대해 “여름 유행 규모가 다소 큰 규모로 왔기 때문에 가을보다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4차 접종 이후 고령층 추가 접종 계획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백신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며 접종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지난주인 8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발표했다. 전국과 수도권은 7주 연속 ‘중간’, 비수도권은 3주째 ‘높음’이다.

방대본은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 위중증·사망자 증가세,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더위 그친다’는 처서, 광주·전남 폭염특보 해제

오늘까지 5~30mm 비 예보...“습도 낮, 당분간 체감온도 높아”

‘여름이 지나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상 처서(處暑)인 23일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내리진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함평·무안·영암·완도·해남·강진·순천·광양·보성·고흥·화성·장성·구례·곡성·담양·나주)에 내리진 폭염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광주와 전남에는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후 집중호우 영향에 따라 특보 해제와 발령이 되풀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오는 24일까지 광

주와 전남에 5~30mm가량의 비가 내려 폭염 특보를 일제히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다소 떨어지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 체감온도가 31~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로 인해 더위는 한풀 꺾이겠으나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축·농작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석 달째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 인명·

재산 피해는 연일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광주에서는 온열 질환자 14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110명이 온열질환 치료를 받았다.

전남 농가 297곳이 기르는 가축 7만4681마리도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축 별로는 닭 65농가 6만709마리, 오리 25농가 1만1863마리, 돼지 207농가 2109마리 등이다.

영광·완도·신안 지역 논 1569ha에선 가뭄 피해가 확인됐다. 바다에서도 수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넵치·우럭 등 8만 마리가 폐사, 2억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